

전국 산업현장 어디에서나 안전은 중요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안전이 더욱 각별하게 다가오는 곳이 있다. 바로 국가 산업의 기초가 되는 금속공업, 화학공업 등 국가기반산업 현장이 그곳이다. 이 가운데 특히 전력산업에서 안전은 한 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좌지우지할 만큼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11년 9월 15일 발생한 대정전 사태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이에 따라 발전소의 안전운행을 위해 정비 및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전KPS(주) 서인천 사업처에서는 남다른 안전관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곳에서 어떻게 안전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봤다.

## 철저한 안전관리 바탕으로 발전설비 명가로 우뚝

### 한전KPS(주) 서인천사업처

취재 김성대 기자 glishu002@safety.or.kr

#### 경영방침의 최우선 안전

한전KPS(주) 서인천사업처는 지난 1992년 1월 서인천복합 화력 시운전사업소로 발족된 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곳이 철저한 안전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2004년 10월 KOSHA 18001 인증을 획득하고 나서부터다.

이를 바탕으로 이곳에서는 ‘실천하는 안전활동 정착’을 슬로건으로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준수’, ‘정리·정돈·청소·청결 강화’, ‘TBM 활동 강화’ 등을 안전보건경영의 세부방침으로 세우고 있다. 기본적인 방향만 봐도 이곳이 안전한 작업환경과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같은 안전경영방침은 현장에서 한 치의 불안정한 행동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위험요인을 완전히 제거해 나가는 것으로 발현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전국 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서인천사업처 스카이분임조는 ‘현장개선분야에서 해수인양전동기 냉각구조 개선으로 정비전수 감소’라는 주제를 발표해 대통령상인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즉 경영진부터 확고한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을 실천에 옮겨 나가면서 근로자들에게도 안전의식이 전파된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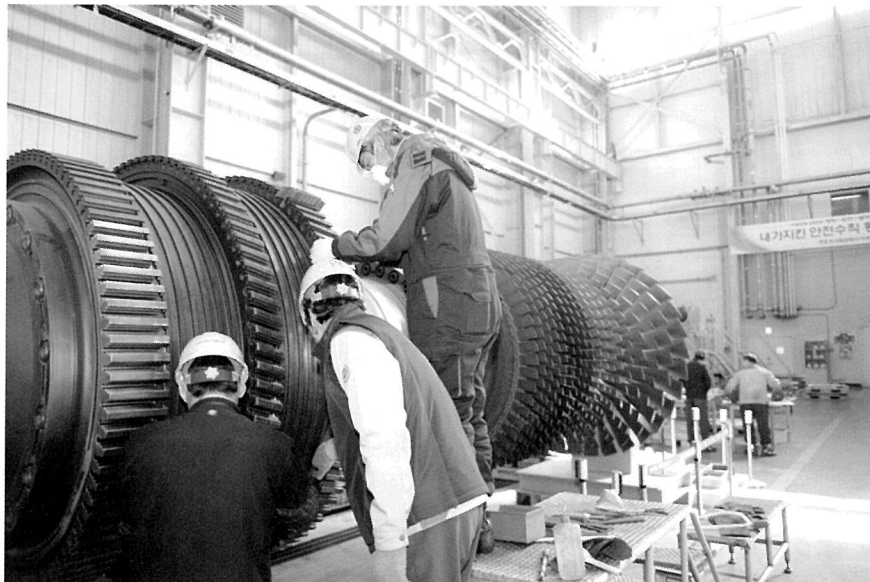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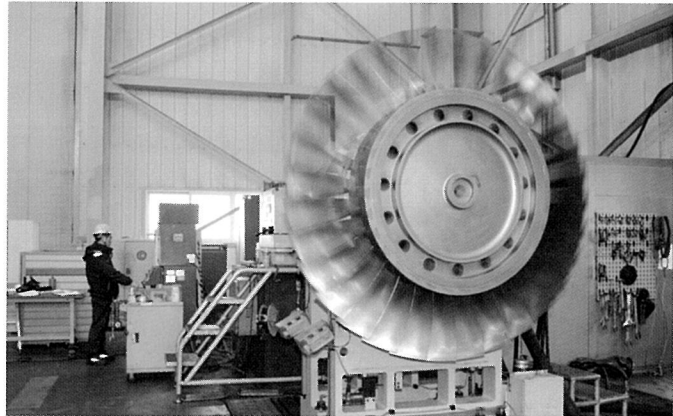
### 공정에 따른 위험요인 제거 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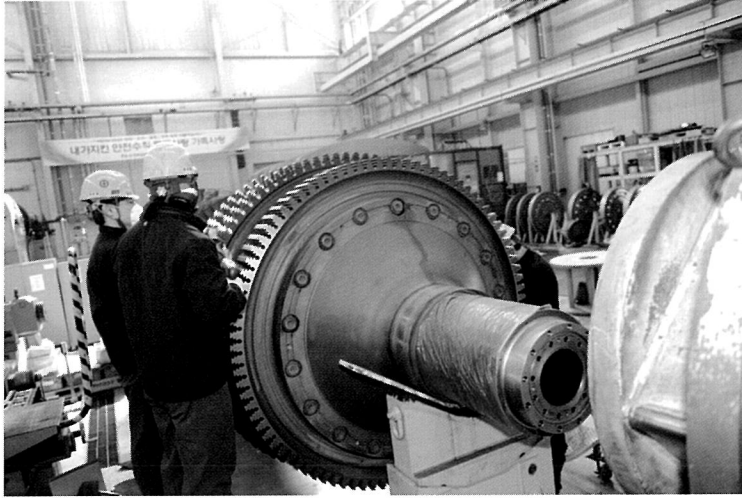
한전KPS(주) 서인천사업처에서는 발전기의 운전 상태점검, 완전분해점검, 간이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각 공정이 진행될 때마다 각종 유해위험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감전, 추락, 질식 등의 재해가 날 가능성이 크고, 또 각종 소음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청각장애를 입을 위험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해 이곳에서는 매 작업 전에 TBM활동을 실시하는 가운데 불시, 정기 현장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밀폐작업 안전프로그램’, ‘소음작업 안전프로그램’ 등의 매뉴얼을 통해 작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의 사고예방법을 전파하고 있다. 실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해 놓고 있는 것이다.

확고한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을 실천





### 안전의식 제고 위한 활동 박차

이곳 안전활동의 백미는 안전교육을 크게 활성화시킨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실제 사고 사례를 전파해 유사재해를 예방하는 한편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모든 근로자들이 발굴, 개선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안전관리책임자를 선두로 32명의 관리감독자들은 모든 현장을 순회하며 유해위험을 파악, 제거해 나가고 있기도 하다. 노사화합의 안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모든 정비 작업과 관련해서 유해위험성평가를 철저히 실시해 단 한 건의 안전 사고도 방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스템과 노사화합을 통해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한전KPS(주) 서인천사업처. 앞으로 이곳의 안전관리가 어떻게 발전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진다. ☺

### 미니인터뷰



최충열 사업처장

### 나를 넘어 우리를 생각하는 안전의식 필요

안전의 시작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진, 관리자, 근로자 각 개인 모두는 각종 유해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리 되지 못한다면 개인은 물론 내 동료에게까지 큰 화가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입니다. 최고경영자인 저에게 안전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전경영은 인간존중의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이며 방법이라는 것을 전국의 경영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